

회원사 에너지솔루션즈, 한국하니웰 첫 번째 우수ESCO인증 획득



• • 회원사 에너지솔루션즈, 한국하니웰 첫 번째 우수ESCO인증 획득



회원사인 에너지솔루션즈(대표 이범용)와 한국하니웰(대표 박성호)이 지난 9월 29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ESCO인증’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ESCO 인증제도’는 올 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ESCO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ESCO를 우수ESCO로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건전한 ESCO를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날 인증서 수여 행사장을 찾은 유제인 회장은 “오늘 우수ESCO로 인증받은

4개사에게 축하드린다. 이를 통해 ESCO업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우수사례 발표를 다른 ESCO들도 벤치마킹해 모든 ESCO가 우수ESCO인증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협회 정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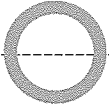
목적에 에너지절약시장활성화와 기후변화협약 대비 추가

협회는 최근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와 흐름에 맞춰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협회는 목적에 “ESCO사업의 환경변화와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장의 활성화와 기후변화협약 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협회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용역사업을 추가했으며 협회회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가입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자체투자실적서 발급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ESCO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혜자로부터 필요한 경비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 • 투자실적증명서 발급 업무

협회의 ESCO 투자실적증명서 발급이 10월 1일부터 회원사에게만 발급하도록 제한된다. 협회는 지난 4월 6일 개최된 제7기 정기총회시 기존 회원사, 비회원사 구별없이 발급하던 투자실적증명서를 회원사에게만 발급토록 의결하였다.

• • 자체투자실적인정서 발급업무 개시

협회가 산자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체투자실적 인정서' 발급업무가 3/4분기부터 개시됐다. 이에 따라 자체투자실적 인정을 원하는 ESCO는 매년 사업이 완료된 당해연도 2, 5, 8, 11월 말까지 협회에 소정의 비용과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체투자실적인정제는 ESCO가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수행한 자체투자사업을 ESCO 투자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ESCO를 육성하기 위해 올 1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관리규정'을 개정, 도입된 제도다. 대상사업은 신청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사업으로 올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설치가 완료된 사업이며 동일 ESCO 투자사업은 1개 ESCO사가, 그리고 공동도급일 경우 주관ESCO사만 신청할 수 있다.

• • 서울대병원 열병합발전 적격심사 협회 주관

협회는 최근 회원사 에너지솔루션즈(대표 이범용)가 수주해 지난 달 착공에 들어간 50억 원 규모의 서울대학병원 열병합발전시설 설치공사 적격심사에 병원측의 요청을 받아 주관했다고 밝혔다. 오는 2007년 완공되는 서울대학병원 열병합발전은 가스엔진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한다. 이 온수를 난방 및 급탕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연간 에너지 절감액은 1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의 설명했다.

• • 협회 신입 고근환 국장 임명



협회는 지난 8월 4대 국장으로 고근환 신입국장(51세)을 임명했다. 고 신입국장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 산업대학원에서 '도시 고품 폐기물의 열에너지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하여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 관련 전문가로 활동했다.

신규 회원사 축하합니다

GS네오빅(주) (대표 최성진), LS산전(주) (대표 김정만)